

‘형설지공’이란 바로 이런 것



▲ 시리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게 된 압둘라 카티네

전쟁과 폭격으로 삶이 파괴해진 상황에서도 학업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은 시리아 출신 10대 소년이 영국 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지난 28일 영국 ‘미러’에 따르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사는 압둘라 카티네(19)는 3년 전 자국 내 화학 올림픽아드 대회를 시작으로 국제 대회에 참가해 수상하게 되면서 자신의 재능을 깨달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공부에 매진했고, 지난해 케임브리지 대학 입학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카티네는 원본 교과서를 살 수 없었고, 집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램프를 사용해 공부했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케임브리지 대학 측은 그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4만 8,000파운드(약 6만 5천 달러)가 넘는 전액 장학금을 제공했다.

카티네는 “올해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간 유일한 시리아 학생이 된 것은 내게 최고의 영예다. 이번 기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며 기쁨을 만끽했다.

입학처장 마이클 서덜랜드는 “이번은 예외적인 경우다. 카티네는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 엄청난 장애를 극복해야 했고, 우리는 그런 그를 지원하고 싶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연금 털어 세계여행 떠난 50대 부부

영국 콘월에서 살고 있는 남편 션과 부인 케이는 오랜 시간 간직해 온 꿈이 있었다. 바로 자전거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는 것. 그러나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드는 부부의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꿈같은 일이었다. 트럭 기사와 우유 짜는 일을 하는 부부에게는 모아둔 돈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는 지난해 여름 큰 결단을 내렸다. 남편 션은 “만약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또 기다린다면 체력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순수도 없는 지금이 바로 세계여행을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미러에 밝혔다.

부부의 발목을 잡은 것은 또 있었다. 바로 자금 문제. 이에 남편은 자신이 몰던 트럭을 팔았고 노년을 위해 모아둔 연금마저 탈탈 털었다. 이렇게 부부는 2인용 자전거와 자전거 2대 등 총 40kg에 달하는 짐을 싣고 지난해 8월 세계여행에 나섰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부부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몽골, 중국,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대륙을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 션은 “세상 곳곳을 달리면



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몽골에서는 밤에 -12도 이상 떨어지는 온도에 벌벌 떨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끔찍한 바람에 날아갈 뻔 했다.”며 웃었다.

이어 “러시아 등 몇몇 지역은 사실 주민들이 적대적이지 않을까 걱정했다.”면서 “하지만 여행 중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 불편한 경험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1만 8,000km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5월 초 귀국했으며 여행 비용으로 1만 7,000파운드(약 2만 3천 달러) 정도를 사용했다.

무려 21번째 아이 임신한 40대 부부

21번째 아이를 임신한 영국의 수 래드포드(43)와 노엘 래드포드(47) 부부가 화제이다.

영국 랭커셔주 모어캠브에 사는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20번째 아들 아치를 낳은 후 마지막 출산이라고 약속했지만 수가 또 아이를 가졌다고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전했다.

래드포드 부부의 첫 출산도 놀랍다. 7살때 남편 노엘을 처음 만난 수는 불과 14살 때 장남 크리스를 가졌고, 결혼 후 3년이 지나 둘째 아이 소피가 세상에 태어났다.

노엘과 수 부부는 둘 다 입양아였다. 그래서 대가족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한다. 2014년, 한 아이를 유산한 슬픈 일도 있었다.

내년에 딸을 출산할 예정인 수는 “믿기지 않는다. 20번째로 임신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을 접했고, 아이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년 유산한 아들 알피를 제외하고 래드포드 부부의 자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남편 노엘도 “우리는 막내가 하루빨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출산만큼 우리 부부에게 더한 행복은 없다.”면서 입양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전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